東亞日報
朝刊 月曜
本紙朝夕合八面
編輯兼發行人 宋鎭禹　印刷人 林宣?
京城府光化門通一三九番地
發行所 株式會社東亞日報社
電話代表番號光化門 一九〇〇
購讀料 一個月 金八十錢 廣告料 一行 金一圓

時評

棉花獎勵會

産米增殖에서 産棉增殖으로, 齋藤時代로부터 宇垣時代에이르러 當局의 産業方針은 이렇게 進展을 보엿다. 産米가 朝鮮農業의 大宗임은 비나 이제나 다름이 없지마는 産米만으로 農村의 更生이 不可能인것은 今日이 實證한다. 이러하야 田作―特用作物―副業等을 吟味케 되엇스니 이른바 農業의 多角化가 이것이다. 當局이 棉作獎勵를 高調한 以來로 地方通信은 차츰 이에對한 各種의 消息을 傳한다. 慶南當局에서는 明春四月을 期하야 獎勵會를 組織하고 婦人指導員의 養成을 期한다 하니 多多益善이라, 所期의 成果를 바라거니와 우리는 이같은 消息을 接할때에 年前에 物議가 많든 手操機共同保管事件을 聯想치 않을수없다. 指導와 獎勵의 功으로 豐作을 얻는다 하더라도 그 利用과 處分에 無理가 생긴다 하면 못처럼 한 本意가 없어질것이다. 「始作이 半」이라, 施設의 初頭부터 이러한 考慮가 없을수 없는일이니 直接으로 事에 當한 地方當局은 우리로 하여곰 이것이 杞憂에 不過함을 實證케하라

地稅와 地主

大邱의 大地主 李氏는 從來의 慣例인 作人의 地稅負擔을 免除하고 小作料도 一割程度로 輕減하엿다 한다. 小作爭議가 만키로 이름이 높은 慶北에 또한 大地主의 [illegible] 手의 脂肪한 消息이나마 세삼스러운 感이 없지도 않다. 「地稅는 地主가 負擔하는것이 可하다」는 부르지즘이 存在하리만큼 朝鮮의 小作條件은 純全한 地主의 뜻대로 되어왓다. 自古로 地主의 專橫을 社會는 무슨까닭으로 容認하엿든가? 地主의 要求가 無理한줄을 分明히 알면서도 作人들은 무슨 까닭으로 그러한 條件에 服從치 아니치 못하게 되엇든가? 이러한 議論과 是非의 批判은 云云하기도 어려운 일이다. 다못 議論할 餘地도없는 地主의 地稅負擔問題가 아즉도 問題대로 남아 잇는이때에 요만한 消息이라도 들려는것이 반갑다는것을 一言할뿐이다.

모히中毒者

印度를 시들게하고 中國을 여위게한 「阿片」이란 麻藥이 朝鮮에도 괴이히 害毒을 펴고야 말앗다. 再昨年 以來로 이미 登錄된 數爻만 하여도 四千四百을 넘는다 하니 實際는 훨신 더 만흘것이다. 中毒된 者는 이미 病者라, 難治의 痼疾을 爲하야 實로 憫惜을 不禁하거니와 그 惡疾을 自取한 動機를 생각할때에는 또한 後戒를 爲하야서라도 唾罵치 않을수 없는일이다. 統計에 依하건대 全羅가 尤甚하야 南北兩道의 數爻는 全朝鮮의 半分以上을 차지하얏스니 이는 무엇을 意味하는가? 三南은 朝鮮의 寶庫요, 湖南은 그中에도 殷富의 地라, 有産이자 有閑인 그네의 生活은 마츰내 이길을 밟게한것이니 享樂의 末路란 大槪 이러한것이다.

滿洲問題總會移牒
日本政府도不反對
既定方針으로取할態度列擧
昨日代表部에訓電

【東京廿六日發電通】 理事會議長 提議의 報告書審議 總會移牒의 件에關한 松岡代表의 請訓에基하야 內田外相, 有田次官以下 外務首腦部는 廿六日午前重要協議를 거듭하고 正午 제네바代表部에對하야 「既定方針에基하야 左記態度를取할事」라고 回訓하얏다

一、帝國政府는 滿洲問題에對한 聯盟規約第十五條의適用에 反對하고 總會의 本問題審議에는 終始留保를附하얏스나 今次理事會에서 議長及各國理事가 問題를總會에 移牒하기를主張하고 問題로서 探擇하랴하면 구타여 反對抗爭치아니함 此를 黙行하라함은 極히遺憾이다 [illegible]

一、理事會가 問題를 總會에 移牒하랴면 各國政府意見書와 二十一日以來의 理事會議事錄을 併하야 送附하라 此에對하야 理事會가 更히 意見을附하랴는 時는 此를 容認할수업다 거듭訓하라

一、次回理事會에서 帝國代表는 第十五條適用反對의 留保事項을 明確히하고 此를 總會에送附할 理事會議事錄中에 明記시키라

特別總會豫定코 國聯事務局準備
順序대로進行하기는極難하다
聯盟形勢漸次重大

【제네바廿六日發電通】 聯盟事務局首腦部는 特別總會開催를 豫想하고 左記順序를豫定하고잇다

一、形式上十九國委員會에 問題를移牒하고 委員會議長은 此를總會에移牒 總會는 十二月六日頃으로 豫定하고 三日間內로 日中其他代表에 發言시킴

二、討議後리튼報告書第一章乃至第八章을 投票에依하야 採決하는 日本의行動이 自衛權의 範圍를 逸脫한것을 認定하고 滿洲國을 眞正한 國家로認치안키로 意味하야 日本은 勿論反對할것이다

三、聯盟規約十五條三項에依한 調停勸告는 十九國委員會又는 此에代한特別委員會에 하게하고 日中兩國이 此에應치안으면 規約十五條四項의 手續에移하

四、規約十五條四項이 適用되어 日本이 此에應치안으면 制裁規定에 進하

푸로그람은 이와가튼데 聯盟幹部는 制裁規定의 意味업슴을痛感하고 또거기까지進치안코 日本은 聯盟을 脫退할것이라고 말하 實際로는 그에까지에 私的會議其他로 問題를 聯盟에서 他會議에 移하고 如한 打開策을取할는지 日本의 脫退에依하야 聯盟이 重大形勢로되리라고 觀測된다

判事依免問題
重大한政法問題化?

【東京二十六日發聯合】 東京事件에 關하야 依願免官이된 東京地方裁判所判事 尾崎明 及 司法官試補 坂本忠助兩氏가 某思想事件關係以上으로 司法問題에 對하야서는 各方面에서 移動을 重視하야 그處置에 對한 重大視하게되어 通常議會에서는 重大問題化할 司法當局의 態度如何에 依하야서는 政府部內에 影響을 미칠 影響이 잇슬것으로 司法當局은 勿論政府部內에 자못對한 [illegible] 取하고잇다

時局影響으로 將校志願激增

【東京二十六日電通】 時局의 影響을 受한 陸軍將校生徒 志願者는 增加하고잇는데 陸軍士官學校 幼年學校로 昨年에比하야 志願者激增 二十五日까지의 狀況에依하면 陸士 八千五百二十人 幼年校 三千八百八十一人에 達하고잇다 試驗은 十一月十부터 十二月一日까지 各師團에서 體格檢査를 行하야 十二月四日 全國一齊히 學科試驗을 한다고 한다

會議아즉前哨
巨彈은업마든지
松岡代表談

【제네바廿五日發聯合】 理事會四日次會議 終了後 松岡代表는 左와如히 말하얏다 再次日中間의 理事會에 上程되기까지 二日間이며 此間에 余의생각하는것은 다만하나 即 [illegible] 하얏다

無稽한記事
外字紙에揭載
三個村民을虐殺햇다七젓
日本公館嚴重抗議

【上海二十五日發電通】 二十五日朝의 外字紙는 日本兵이 撫順附近의 三村落에서 二千七百名의 老弱男女 村民을 虐殺하얏다 荒唐無稽한 南京路透電을 揭載하얏슴으로 日本公使館 當局은 同社에 取消를 要求하는同時에 嚴重抗議한바 同社는 右는 中國民政府의 發表한것이라고 釋明하야 依 公使館은 國際信用, 軍의威信을傷하라는 國民政府의 行動에 對하야 近近嚴重抗議하기로 되엇다

政友時局匡救
調査報告會

【東京廿六日發聯合】 政友會에서는 前부터 全國各地에 時局匡救調査班을 派遣하야 調査中이든바 [illegible]

對米爲替는 二十弗臺維持
資本逃避防止法强化가
外國市場에强影響

【東京廿六日發聯合】 對米爲替最低는 二十弗九十仙以上을 特히 二十弗臺危殆하다고본 政報한것은 即 이 效果이다 또 政府는 資本逃避防止法의 斷行을한 요사이에 大藏當局의 調査斷行하고 銀行에게 爲替取引을에 依하면 大連上海兩市場에서 每日報告케한 同時에 正金銀行日本支行과가티 相當히 思議的으로 아야금 安價買唱에 對하야 聞賣를하기때문에 반全의 反動的 買應케하야 二十六日의 市場에은 日本內地高보다고 오히려 되엇는데 겨우 二十弗臺를 回復하게 日本銀行이 今回의 防止法强化의 效果는 特히 海外市場에 資本逃避防止로 海外支店의 爲買를 刻刻報場에서 强하다 二十六日入電에서 聞買埋가 行하고잇기때문 외 紐育市場의 二十一弗二十이다 그러나 先行時勢는 큰 反五仙이고 同日의 上海市場日勤은 업스리라고 보힌다

總會召集에關聯하야
大國側裏面策謀
日本과小國側을對立시키고
激化後妥協案提出?

【東京廿六日發電通】 리튼報告書及日本政府意見書를基礎로 하는 滿洲問題討議는 理事會에 서만 行할것이란 日本政府의主張에不拘하고 聯盟側은 畢竟問題를 總會에 移牒하랴하게되엇는데 理事會가 如斯히急遽責任을 總會에轉嫁하라는 理由는 리튼報告書結論과 日本의 滿洲國承認은 不相容일뿐아니라 理事會大國은 日本의行爲에 强壓을加할勇氣가 업스나 一方小國及 歐洲諸國의 情態로 日本의主張을 許容할수업고 結局滿足한解決을 得할수 업는外닭에 總會에 移牒하야 小國과 日本의主張을 對立시키고 其間에妥協點을 求하랴는것인데 그裡面에에서 小國의主張에 日本이 屈服하기를 期待하고 兩者가 對立激化한 際 妥協案을提出하야 漁父의 利를 占하라는것이라 豫想되다 는것을 諒察한日本當局에서는 聯盟의組織에 根本的懷疑을懷하고境遇에따하서는最後的決意를實行할수박게업나고 깁히警戒하고 잇는듯하다

理事會緊張으로
排日運動再燃
天津에連日爆彈騷動
日本側은對策決定

【南京二十六日發聯合】 聯盟理事會의 日中問題討議와 同時에 排日除奸團의 活動은 勃然히 排日氣分은 再燃하야 各學校抗日會는 二十五日 代表大會를開하고 各種排日條項을 決議하얏다 當局은 今日까지 十數回에 亘하야 當地日本當局의 態度如何에 依하야서는 政府 [illegible]

【天津二十六日發聯合】 聯盟理事會의 日中問題討議와 同時에 當地中人街及 佛租界에서는 二十四日 四件, 二十五日 二件의 爆彈騷動이 잇서 負傷者 數名을 出하고 目下日本 自衛權을 發動케 되어 商人과 民團側과의 協去來는 한다는 重大方針을 決定하얏다 [illegible]

民政은現閣支持
議會通過圖謀

【東京二十六日發聯合】 議會를 目前에둔政界는 人而淸名된 斑이고 또聯盟會議에 粘融을 니와 注目은 제네바에 集中되엇는바 政民兩黨共히 反政府派의 策動하는者가 相當히 있는形勢이라 齋藤首相의 議會前辭職說 그것을 機會로 政友一派의 策動說等 頻頻히 話題로되는데 民政黨에서는 當初의 方針대로 時局이 政局인만큼 政變을 爲한 政變은 絶對避할것이라고 한다 어데까지던지 現內閣을 支持하야 現內閣이 編成한 八年度豫算案을 議會通過를 圖하기로 鈴木總裁의 意圖는 決定하얏스며 또政友會에서도 幹部級은 自重主義를 取하고잇슴으로 所聞과 가른 切迫한 政變은 업스리라 觀測된다 齋藤首相의 議會前辭職說等 首相自身은 一部의 放送에 不過하고 笑殺하얏다

選擧法改正案
來議會에提出

【東京二十五日發聯合】 衆議院議員 選擧法 改正에關하야 法制審議會 答申案의 立法化方針을 決定한 內務, 司法 兩省及法制局의 聯合協議會는 二十五日午前十時부터 內相官邸에서 開催協議한結果 原則으로 法制審議會의 立法化를 圖하야 來議會에 提出하기로 方針을 決定하고 午後 一時 散會하얏다 各調査班 可及的急速으로 報告書提出하게되엿고 [illegible] 本總裁를비롯하야 各總務 各顧問並各調査班等六十餘名이 出席하고 山口幹事長으로부터 各府縣別의 調査報告가 잇섯고 午後六時散會하얏다

東京市電再次紛爭

【東京廿六日發電通】 東京市電氣局은 廿五日夜 三十七名의 從業員解雇를 發表하얏다 解雇者中에는 思想關係 十九名 勤務狀況不良 六十一名 老病陶汰 十七名을 合하야 市電當局은 過般의 調停委員會의 決議條項의 範圍內라 主張하고잇스나 東京交通勞働組合은 事의 意外에 驚하야 極히 不滿하다하야 再次鬪爭準備를 開始하얏다

首相、內府訪問

【東京二十五日發聯合】 齋藤首相은 二十五日 午後三時 官邸로 牧野內大臣을 訪問하고 約四十分에 亘하야 重要協議를 遂하얏다

各特派員放送

【東京二十五日發電通】 二十九日午前六時半의 제네바放送時間에는 日本電報通信社特派員及 川六三四氏 其他 新聞社特派員이 故國에 放送하기로되엇다

엇더케하야 難症痔疾을 徹底하게 解決할가? 于先本書를 一讀하라!

痔疾의研究와自宅療法

痔疾單獨療法의公開
百方으로盡力하야도왜痔疾이낫지안나?
잘못된處置와平凡한藥으로는痔는낫지안어

無代頒布

痔疾은全人類의三分之一을侵襲하는두려운難病・그死亡率은結核以다음・本書는痔疾의發生・手當・治療法의一切를平明懇切히詳述한것

一明讀에間回春의光明을指示하는것 거즛업는同病者闘病體驗記★참말難得唯一痔疾治療讀本 即刻에잡으라 道在近이다 四六版★七十頁의美册子

痔疾이안낫는境遇

痔疾을五年十年乃至二十年가지 리를 내는사람을調査해보면、흔히는 誤生하의處置를그릇하고 또는平凡한 效果不充分한藥으로 滿足하고잇다、잘못된處置와 안듯는藥을아모리試驗해본들 痔疾이 나을理업고、도리혀 이리하야 漸漸 어렵게될뿐이다。

痔疾藥의 絶對條件은무어냐

痔疾이라고통틀어말하지만는 痔核、痔瘻、痔出血、脫肛、痔疾等種類가만코그 治療藥도嚴正한選擇이必要하다。藥의選擇은恒常理論과實際의兩方面으로할것이오 理論的으로는止痛하는作用、止血하는作用、吸收防腐、殺菌、保溫、消炎의作用이必要하고、또가장重要한것은痔疾의根源을 힘이다。 世上에 효能一種의 藥은흔히이作用이업스므로根本的으로痔疾을곤칠수가업는것이다。

理論보다도實効가第一이다

또實際的方面으로는그藥이얼마 痔患者에게經驗한것인지、또얼마만한效果를 어덧는지、結局은藥物的인歷史와信用이냐。最近에出하는出處모를痔疾藥等은別스런理論을깨가면서도實際로는도모지效果가업다는悲劇을當하야 다하고 限定할수도업는일이나注意할것이다。

實効와信用에 빗난痔疾良藥

醫권단實效第一信用第一의藥을選擇할것이오、또組織的作用을가진것어絶對條件이다。이러한 冷靜한批判으로써가장適當하고信用할만한것은오래前부터잇는「小松ちの藥」이나、이藥은理論과實際의兩方面으로 非常히優秀한것은衆目所視이다。

小松ちの藥의主劑는一種獨特한것이니무서운難症痔疾의苦痛을消散케하는藥作用이크고。創製以來임의數十年痔疾患者間에가장好評으로서歡迎을바더온것이다

(全國藥店에서小松ちの藥이라고指名하시고買求하시옵)

痔疾로고생하는분은即刻에葉書로 左記處에申込하시라！前記療法書無代로進呈합、讀者無用、一張葉書가能히貴下를痔苦로부터救出하는因이되리라

申込先 東京市日本橋區本町一丁目九番地 玉置合名會社頒布係 電話ならば日本橋四〇五八番へ

漢方大醫淺田宗伯先生直傳
한방대의 아사다 소학구선생 직전

淺田飴 (아사다아메)

咳嗽、祛痰、滋養、强壯、感冒一切、病後衰弱、産前産後、虛弱者等ニ用ヒテ効能顯著ノ靈藥ナリ
甘味芳香ニシテ最老幼婦女ノ嗜好ニ適ス

定價 二十錢 三十錢 五十錢 一圓 二圓

本舖 東京・大阪 堀內伊太郞
各地有名藥店ニテ販賣ス

農産收入은家計費보담 一割二分餘가不足

負債償還方途茫然

農會特派員駐在調査結果

조선농회(朝鮮農會)에서 조선농가의 제반사항을 조사하기위하야 직원을 一정한 지방에 一년간(年間)주재케하고 날마다 농가를 순회하며 실지로 농가의 가계비(家計費)보다약 一할이 부족하다고한다

농가의 총수입은 一반적농산물과 양잠(養蠶)가타 가축을 포함한것이오 가계비라함은 주거비(住居費) 음식비(飮食費) 피복비(被服費) 광열비(光熱費) 집긔비(什器費) 교육비(敎育費) 교제비(交際費)가타려한다

이통계에 비최어보면 자작농(自作農)이나 자작겸소작(自作兼小作)이나 순소작(純小作)이나 모다 년년이 부채만이 늘어갈뿐임으로 이부채를 가퍼볼길은 망연하다이제 농가의 총소득과 가계비와의 비교표를 작성하야 본다하면 다음과갓다

種別	農家總所得	家計費	不足額
自作農	六七九、八一九	七〇一、六八九	二一、八七〇
自作兼小作	三九二、九八七	四七三、〇七七	八〇、〇九〇
小作農	二九七、九九九	三二七、六〇七	二九、六〇八
平均	四五六、九三五	五〇〇、七九〇	四三、八五五

委員等論議만反復 兩派間妥協決裂

贊成派는非常召集對策講究

暗礁에걸린輕療所案

암초에 걸려잇는문제의 경성부청비진료소와 최후타협을 엇가위하야 二十六일 오후二시부터 부칭위원회의실에서 열닌주사위원회(主査委員會)는 긴날에 게속하아 찬부량파의 화집솜와화하고 또는 타협의 첨솜 발젼코저 노력하얏스나 원안반대파의 화집으로 량파의 상의는 동일오후六시경에 필경 결렬되고 마렀다

반대파의 화집은 동경비진료소의 유지비로 三十만원을적립코저하는 부의원안을 반대하야 그[illegible]을 업새고 그외유지는 부외一반취게의 경상비로 부터 년二만五천원식을 지출하야 그를 유지하사는 것이다

이에 대하야 부의원안찬성파는 그는장래 생겨날경비진료소와 긔초를 불안정케하는동시에 그유지에 큰불안을 주는것임으로 단연반대한다는것이다

이로써 저렬된 찬성파의 주사의원들은 즉시 찬성파의 권위원을 소집하고 부윤응접실에서 밤이 깁드록 그대책을 강구하는 중이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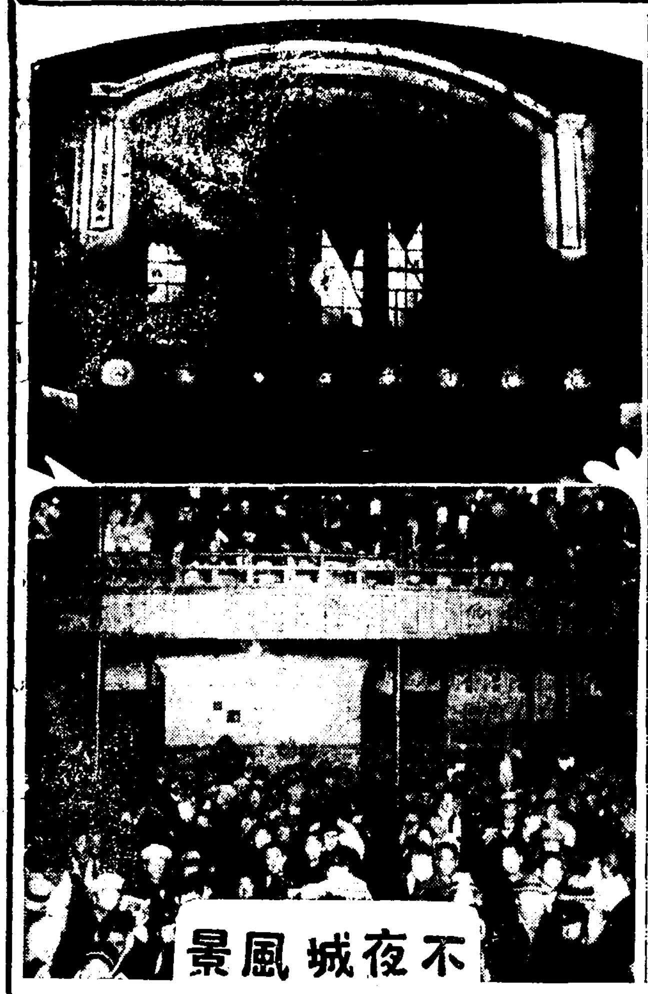
北青農組事件 最高五年役

【被告金廷琯控訴提起】

廿五日咸興에서判決

【함흥】 작년七월경에 발생한북청농민조합사건에대한 공판이잇섯다함은 긔보한바와갓거니와 지난二十五일 함흥법원신그법정에서 동본(藤本)재판장으로부터 전긔피고十七명에게 언도하엿는데 피고중 권정판(全廷琯)은 형긔에대한불만을 법정에서연설하고 공소를 제긔한다고 언명하얏다

被告	求刑	言渡	未決通算
金敏琯	七年	五年	百廿日
金鉉晳	五年	四年	同
金樹盛	同	同	同
全淳炳	同	同	同
李吉林	同	三年	同
趙弘林	四年	三年	同
金鉉觀	三年六月	二年六月	同
李泰善	二年六月	同	同
李長夏	同	同	六十日
劉南協	同	同	同
全白鎬	同	同	同
全松俊	同	同	同
金學善	同	同	同
金明鎬	同	同	同
全道熙	同	同	同
全泰良	同	同	同
崔鐸允	三年	同	同



不夜城風景

白晝銀行에 拳銃들고侵入

삼천원 가저가다가 잡혀

神戸市内에又一상

【神戸二十六日發電通】 二十六일오후령시五분 신호 시림전구대교정(神戸市林田區大橋町)五정목十一번지 제五十六 은행구림지점(駒林支店)뒤문으로부터 괴한이돌연 권총을 내여밀고 행원의 배후에나타나 모ㅣ 젊식 권총을 쏘아 두려움에 떨고잇는二명은 괴한을추격하야 림전(林)행원외틀을다서 책상위에 노혀잇든 현금三천원을 강탈도주하엿다

이날은 토요일임으로 정문은 벌서 폐쇄하고 행원十여명이장부정리에 망살중이엇섯는데 피서즘된 괴한이돌연 출납게굴 스톨소리에 놀란그때는 벌서범인이 뒤문으로 달려나려고하든 때이엇다 이급보를드른 은행원 二발을쏘아 두려움에 떨고잇는二명은 괴한을추격하야

眞犯은杳然 嫌疑者取調

범인 체포에 고심활동중

駐在所銃劍盜失事件

【고원】 긔보=지난二十일 오후八시四十분경 괴청년이 정주군고덕면신시 (定州郡古德面新市)에나타나 버ㅅ가리에불을질르고 당지주재소에침입하아 총검을가지고간 중대사건은 그후경찰당국에서는 부근은물론 수사범위를 평북一대에버치어 주야로 범인체포에 고심하나 아직까지 단서조차 엇지못한모양인데 지난二十二일에 고덕면신시에 주소를두고 고덕주재소(古德駐在所)에서 소사로잇는 최명근(崔明根)을혐의자로체포하야 본서로압송하고 밤금취조 중이라고한다

拳銃携帶한怪青年 平北各地에出沒

◇碧潼에선軍資五千圓强請

犯人去處를嚴探中

【신의주】 시국표방의 권총청년단은 마치 독가비불모양으로 오늘은 이곳에래일은 저곳에나타나 그정체를알아볼수가 업서 평북경찰당국은 커웍이 신경을 날카로웁게하고잇다 ── 저간삭주군(朔州郡)내에 나타낫든괴청년단의 행방도 묘연하야수사대가 머리를알코잇는요지음 지난二十三일 오후十二시경에 벽동군가별면삼상동(碧潼郡加別面別上洞) 一二四 리석렴(李錫林)(九)방에 괴청년二명이 나타나 一명은 밧게서 파수를보고 一명은 실내에들어와 자긔들은 만주에서 건너온조선〇〇단원으로 주인에게 현금二천원이잇슴을 알고차자왓스니 그것을 제공하라하며 권총을주인의 목에대이고 위협하야 현금十원二十五전을 바든후 경찰에신고하면 一가족을 전멸시키겟다는말을 남기고 도망하얏다는데 익二十四일오전九시에 권긔사실을 신고바든 벽동서에서는목하 범인의행방을 엄중수사중이라한다

空家專門窃盜

본적주소부정전과三범리춘식(李春植)(三九)은 지난八월부터 시내로도라다니며전후十五건의절도짓을 하야 ... 田)서원과협력하야 이엽소학교(二葉小學校)에서 드듸어 체포하엿다고한다

古市町에도 强盜騷動!

잡고보니 장정의 행상!

昨夕의넌센스一幕

작二十五일오후 六시경 룡산서에서도 강도사건이 생겻다하야 一대 소동을이르컷든 일이잇다 부내 고시정 二十二번지권선(?)란상업학교 교유 궁천보(宮川保)씨의집에 돌연二명의일본인장청이나타나 안으로 장근문을 열고 협박하야 안에잇든권긔궁 권씨의 부인은 이를반항하야 곳 하녀를시켜 뒤문으로 빠저나가 전화로 룡산서에 통지하얏다든 룡산서에는 이급보를듯고 즉시경계하든 형사대를 출동시켜그들을체포하야 취조한결과 그들은 부내 합동(蛤洞)一九六번지 하숙옥에묵어잇는천원광태(川原廣太)(二〇)와 귀총협행(鬼塚脇行)으로 판명되엇는데 그들의말에의하면 강도질이목적이아니라 편지지를 팔려갓섯다는것이다 술이취해잇는것으로보아 그럴듯함으로 결국一주일구류 처분을 하얏다한다

測候所新廳舍 一般參觀歡迎

경성측후소(京城測候所)는 긔보한바와가티 二十五년간의 구청사에서 지난一일부터 송월동一번지에 신축이전한바 금二十六일정오부터 三시까지 일반에게 참관을 허락할터이라한다

平北土木疑獄 十二名起訴

◇二十一名은免訴

【신의주】 평북도 토목청부업자 담합사건(平北道土木請負業者談合事件)은 지난九월三일부터 신의주경찰서의 활동을보아 동九일관계자四十三명중十七명의 신체구속으로 신의주검사국에 송치되어 곡천(谷田)차석검사의손에 취조를밧다가 동十六일 전긔十七명을 신체구속을풀고 이래사건취조에 전력을경도하야 오든중 一동안 취조의 一단락을 고하야 시난二十二일 관계자四十三명중 길야류길(吉野留吉)(二?)과 천도평의원 길전아일(吉田雅一)등 十二명만 신체불구속대로 기소하고 나머지三十一명은 불긔소로 하얏다한다

【谷田檢事談】 이사건에대하야 곡천(谷田)검사는 무거운짐을 버섯다는듯이 미소를씌이고 말한다

처음부터 엇지지 공명정대한길을 밟아왓다고 생각합니다 一시송국된 十七명의 신체구속을 푼것에대하야 오해도 잇을뜻하나 그것은 토목청부업자들의 신체를구속하야 궁민구제공사(窮民救濟工事)진행에 지장이잇슬가 념려한것이며 그外닭으로 그만혼관계자들을 송국된날부터 一주일동안 밤을새어가며 취조한것입니다

京畿共耕組合 成績頗良好

경긔도농회(京畿道農會)의조성에의하야 금년봄부터 도내각군농회(郡農會)가 장려조직한 공동경작조합(共同耕作組合)은 一백四조합으로 조합원 총수는 二천五백二十五명에달한다한다 동조합을 또다시 성별과기타로구분하면 보통농가 농민으로서 조직된것이 七十二조합이오 청년(青年)으로 조직된것이二十조합 부인(婦人)으로서 조직된것이 十二조합인데 경작면적(耕作面積)은六十九정六묘 즉 二十만七천一백八十평에달하얏다한다

그런데 금년도의 총수확예상고는 벼(正租)가 一천三백八十八석十두 조(粟) 十四석五두 감자(甘藷)八천五十관외에며 콩(大豆)이 十석七두四승이오 기타 류의 곡물도상당한 수자의수확이잇스리라하야 금년도의 약간 한발이잇섯슴에도 불구하고그 성적이량호하다고한다

落穗集

▽──△

최근경성시내에 강도사건이 엇지나 계속되는지 시민들은 전전긍긍하야경찰을 비란하는 소리가 놉하간다

강도이야기가 낫으니말이지 二十六일새벽 천매국판사에침입하얏든강도범인 정상(井上)이란자는 금년중으로 순사시험을 서번이나보고 모조리떠러저국을 먹은자이라한다 이자가 만약순사시험에 급제하야 관경이되엇든들 못은짓을하얏을가?

▽──△

조선총독과 면회하고 담판할말이 잇다하야 총독을 면회하려 상경한사람이잇다

북청군 신포면 신포리 (北靑郡新浦面新浦里) 리재검 (李在檢)은 지난 二十三일오후 시 十五분 신포역발 열차로 상경하얏는데 그는조선총독을 면회하고 담판할일이 잇다는것이 상경한 목적인데 이것을안 북청경찰서에서는 그의 신분을 조사한결과 지난十월부터 정신에이상이 생긴사람인바 부외아현리(阿峴里)그의 처가되는 김춘선(金春先)방에 간듯하다하야 소관룡산서에 주의하라는 통지가 도착하얏다한다

라다니며전후十五건의절도짓을 하야 최근룡산서원에게 체포되엇는데 그는비정을 차저다니며 쇠갈퀴로 공교히문을열고 드러가는도적이라고한다

壁上世態에喜悲도猝變 自我를忘却하는陶醉境

리해에 상관업는 눈물과 우슴의가치

【第五】 劇場篇 E記者

○──○

해만떨어지면은 극장의 호적소리는 멀리멀리 들여옵니다

저녁을 먹고나면은 하로의 피곤한몸은 다뜻한 아랫목에 그대로 쓸어저 자고 십습니다 그러나 불러는 극장의 호적소리는 예술에주린 그넉을 불너마지안습니다 별달리맛나자는 애인과의 약속이업스나 그래나더나기실흔 아랫목자리를 나뻐고단한 몸을 잇끌고 극장문아플달려는것입니다

○──○

휘황한 불빗헤 나부쎄는 깃발「혁한사람들」「죽음의설령(雪嶺)」「천사의 마음」「켓사랑의 설움」! ……등등의 울긋불긋한「포스터」가 어느것하나 영화팬들의 마음을 잡어다리지 아니함이 업습니다

영화광이 아니라도 만원! 의들날리는 종이 울리기 전에 아플 다투어예술의전당! 그리로 들어가고야 마는 것입니다

○──○

장내에 켜지엇든 전등이 꺼범! 하면은「스크린」에 나타나는사진은 우리눈에 드러오는것입니다

울지기는 사진은 우리의감정에사라 뛰노는것입니다

나를 잇고 그가운데 헤매이는 나는그감정에 울기도 하고 옷기도 하는것입니다

비참참혹한 장면에는 발을구르기도하고 주먹을 쥐이기도합니다

○──○

이러구러 피로한 몸을깨이듯 극장문밧을 몰려 나오면는 찬란한 불빗 오히려 쓸쓸합니다

(사진은 극장과 관객)

今日

陽曆 十一月廿七日(日曜)
陰曆 十月三十日(壬辰)
日出前 七、二二 日沒後 五、一六
月出前 一、四〇 月入後 五、四〇

【滿潮】 【干潮】
仁川 前 三、五〇 後〇、三〇
釜山 前 四、〇〇 五、〇五
元山 前 四、〇〇 五、〇〇

日曜講話

▲向上會館 午後七時 李智光氏
▲朝鮮中央基督敎青年會 하나님이되자 午前十一時 鄭春洙氏
▲昇洞敎會 午前十一時 李智光氏
▲貞洞敎會 午前十一時 金永燮氏
▲靈魂不滅 下午七時 梁柳煥氏

라디오

【二十七日日曜】 午前十一時五十九分正午時報▲午後零時五分氣象通報▲零時半뉴—스▲零時五十分和洋合奏 中央和洋合奏團▲二時二十分運動競技實況 蹴球試合狀況▲五時四十五分當夜프로그람發表▲六時少女라디오드라마▲六時三十分라디오드라마 演出新舞臺同人 指揮新霽星▲七時뉴—스 프로그람發表▲七時半피아노獨奏 사진外釋前田三男▲八時長唄(A)▲八時半放送劇(A)▲九時時報(A)氣象通報

青年의運命을破滅하는 手〇의害

包莖、發育不全、弱小
肉體＝血色衰하고瘦瘠
頭腦＝멍텅구리가된다

小學校에다닐때는 伶俐한아이라고남에게稱讚밧고兩親은더욱사랑하야、將來는幸福中에자라더니十四五歲부터、惡友에게不自然行爲의惡癖이물들어、中學時代에는明朗한元氣가어데로갓는지、공연히陰鬱해지고、顔色도蒼白하며視力이弱하고肉體는榮養不良가티疲弊하며、神經衰弱이되고、억지로卒業할수록成績이남버지고겨오卒業한後上級學校의入學試驗에落第하야 虛送歲月하는中에花柳界에投足을하게되면는、彼의生殖器는發育不全、機能障害로男性의資格이업더니、그래도남이추켜세우는바람에無益한浪費만하므로、兩親도김히念慮하야彼의將來가되는、그後頭腦가더욱멍텅이가되는彼는、남의誘惑에빠저粒粒辛苦의祖先의遺産을蕩盡하고逃亡하고、마츰내依支할곳업는零落한몸이되어雨露를避할곳도업시되엇다、이것은누구나남의일이아니다오늘날의身勢가明日에내身勢가되지말도록남이注意하기前에速히自覺하야斷然히不自然行爲를삼가고、男子의元氣、腦力、體力의根이되는生殖器의弱小를强健發育케하야、前途幸福成功의基를만드는것이急務이다。거기에는專賣特許ホリック眞空水治器를、自手로秘密簡單히 直接局部에使用하야 物理療法을行하면、本然의驚嘆할眞空吸引力에依하야數學的으로發育이顯著하고同時에神秘無窮한作用으로、性神經을復活하야 心身의氣分外지明朗해지며 腦力記憶力外지도增進하게되고 短時日內에弱小를强健發育케

醫學博士 六十餘名 實驗證明推奬
專賣特許 ホリック眞空水治器 金四圓五十錢 (送料十五錢)
◇包莖이돼지안코 專賣特許 ホリック包莖矯正器 金二圓八十錢

非賣品 無代圖入說明書 性的新知識滿載 多數實驗者의赤裸裸한眞劍的告白文付 ◎葉書로申込하라 無料密送

東京市芝區 電話芝三三九
大阪市北區
東京 新療法研究所 大阪支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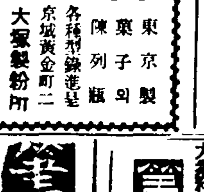
連夜大滿員謝禮

여러분의愛護하시는카페、平和가開城支店「카페、開城會館」을新設하엿슴은以來連日連夜大滿員의盛況을呈하엿슴은오로지顧客의本舘을熱愛하신結晶이라敢히紙上으로感謝의意를表하나이다

★會席五十人外지 ◇宴會 ◇御膳 ◇御食 拵供
★淸廉低價한飮食은每日正午부터始作합니다

本店 京城茶屋町一 カフヱ平和 電話光六五四番
支店 開城南本町一九一 カフヱ開城會館 電話四七番

봉산녀흔 牛乳石鹼
日本一 日本製 美肌 高級品
우유비누
牛乳石鹼本舖 SK.228



東京製菓子외 各種製菓陳列販賣
京城黃金町二 大塚製粉所

東亞日報京城販賣部 電光七三〇
■十一月二十六日부터三日間
破格的大衆映畵公開
階上二十錢均一 階下十錢均一
◇獨逸公社超特作映畵 죽엄의雪嶺 12
名匠G·W、파부스트氏監督作品
아놀드팡크氏原作
◇美國코론會社大維畵
戰爭이냐 平和냐 一九四〇年 9
團成社 電話光九五九番

■十一月二十五日(金曜日)부터三日間大公開
歐羅巴映畵特作名畵上映
不減의放浪者 10
主演 구스다프·후레리히氏
史劇 로벨트 12
主演 이완모주반氏
第一劇場 電話光一七五五番
大衆料金 階上十五錢 階下十錢均一

筆生 男女 不問 內外人 神戸市 英文社

外用常備藥 一二三
皮膚病退治
患部를刺戟안코 短時日에治療한다
버짐、습진 水蟲、濃腫 쇠버짐 其他 一切의皮膚病
實效散本舖 新聞天然堂 東京神田

ボッチャン
ヂャウチャン
ケフモグリコ
メシアガレ

咸南水稅調定額 三十萬三千餘圓

◇十여개중六개소외수세만 昨年度滯納四萬圓

【함흥】함남도에 소속된수리조합수(水利組合數)는 十여처소인데 년년히문제되어잇는 수세부가금이 조정에든 六개수조에만三십만三천六백三십一원이라하는데 작년체납금 三만九천五백九십一원을 합하야 三십四만三천二백二십二원이라고하는바 오는십二월一일부로 징수에 적극진출하리라고한다

◇七年度調定額

安南水組 二萬七千七百廿二圓
南大水組 八千四百八十九圓
泰柳水組 三萬百六圓
良德水組 十萬八千百二圓
咸興水組 十二萬七千圓
大坪水組 二千二百十二圓
合計 三十萬三千六百卅一圓

◇六年度滯納額

安鶴水組 四千五百六十五圓
泰柳水組 七千四百十二圓
良德水組 六千七百九十四圓
南大水組 五千九百七十七圓
咸興水組 七千百九十四圓
州川水組 九十九圓
山谷水組 三百八十二圓
大坪水組 六千九百四圓
荏子洞水組 二百六十八圓
計 三萬九千五百九十一圓

森組廢止코 山林稅徵收

조합비보다 一할가량경감 山에따라等級을査定

【광주】삼림조합(森林組合)을 폐지하고그사업을 도지방비로이관하게 됨을따라 산림세(山林稅)는 종래의삼림 조합비에 비하야二할을 경감한다고한다

그럼으로 소화七년도의 전라남도 삼림조합비 二十二만여원이엇든것이 소화八년도의 산림세는 十七만여원에 불과하리라고한다

수입이 전과한바와가티 경감됨을따라서 종래의 삼림조합의 기수四十一명 과수보一백八十三명 서기二十二명합하야 二백四十六명중에서 약간의 정리가 잇스리라고한다

그런데도 전체의 삼림조합비는二할을 경감한다고하나 개인에 잇서서는 그부담이 격증하는 사람도잇슬것이며 격감되는사람도잇스리라고한다

왜그런고하니 종래의 삼림조합비는 군을단위로하야 조합비를 一률적으로 부과하얏섯스나 산림세는 면을단위로하야 등급을 사정하는동시에 산에딸하서 등급을 사정하게되는 까닭이라고한다

授業料未納 固城에八千圓

給料支拂에大影響

【고성】경남고성군(固城郡)에는 관내十四면에 산재한十四보통학교의 수업료의 미납액이 지난十一월말일현재로 약八천원이라는 엄청난수자를 가르치고잇다는데 그중 고성보통학교가 十四교미납액의 약반액으로 三천七백여원에 달하야 지난九월에는 선생의봉급을 지출할수 업서서 하는수업시 도지사의인가를어더서 일시차입금(一時借入金)六천원을 과채하야 봉급을지출하얏다고한다

南道女子籠球

壬申俱樂部優勝

【광주】광주녀자긔독교청년회주최와 본사광주지국 후원으로 남조선녀자롱구선수권 대회를 개최한다함은 본지에루보하엿거니와 예정과가티 지난二十三일 사립보통학교운동장에서 대회장 김필례(金弼禮) 녀사의 의미심장한개회사로 선수입장식이끗난후 경기를시작하얏는바 당지에서는 처음보는청년녀자들의 씩씩한긔상과 묘기에도취한수백관중은 손바닥이 쌔여지도록 박수로성원하는중에서 임신구락부(壬申俱樂部)대광주녀자긔독교청년회의 결승전은 十六대九로 임신구락부가 우승하얏다고한다

그리고 본대회에 우승패를긔증한화신상점(和新商店)과과자부상을긔증한분에게는 사의를 표한다고한다

稧長手數料로 斗貰를徵收

一석에도三승一두에도三승 小作人의負擔過重

【안계】경북의성군안계(義城郡安溪)一대에는 지주동회의소유토지가 四천석지이나잇서 그에대한 소작인은 실로천여명에 달한바 회사의방침이 일반소작인에게 동별 혹은면별로 소작인계(小作人稧)를 조직하야계장은실무에 열중한 사람을 에서 선정하야 일을보이든바 계장의노력에 대해서는 회사에서는 하등의보수가업고 가을에소작료수납시에말세(斗貰)라는명목하에 소작료一석에 대하야三승씩을증봉하야서 일반계장에게 보수로준다고한다 그런데이에대하야 너무나 불공평하고일을하다한다 가령一석에대한말세가三승이라면그것은그럴듯하거니와소작료一두에대하야서도말세三승을받는다는것이다 이에대하야 지주동회측의 말을듯건데 일반의불평은잇슬줄아는바이나 소작료一석이나 一두나계장의노력에 잇서서는 다름이 업슬줄압니다 그러고 종래의 습관상그러하니 참졸에개정하기도어렵습니다 운운

松林普校竣工

【겸이포】황주군송림면(黃州郡松林面)송림보통학교는 지난八월二十九일에 개교식을거행하고 이래四개월간이나 가교사에서 교수중이든바 백三十여건평의 교사를준공한후 검사를필하얏다는바 이달안으로 이전하야 교수하리라한다

족하를毆打致死

형의의뢰바더 길르다가 加害夫妻는事實否認

【목포】목포부죽교리(木浦府竹橋里)리래옥(李來玉)은 자긔형의아들 성민(成珉)(ㅁ)을양육하든중 무지한학대와 가혹한매로 지난二十二일 무참하게도죽엇다한다

탐문한바에 의하면 전긔리래옥은 자긔의형이 어려운살림에 살길을차저 멀리일본으로 떠날때 동생되는리래옥에게 귀여운아들을 잘길러달라고 부탁한후매월 十원이라는돈을 부처엇다고한다 그러나리래옥의부부는 형의부탁을바든 어린성민을 학대하기시작하야 결국그가티 죽게되엇다한다 이소식을 접한 목포서에서는 리래옥과 그의처 최복개(崔福皆)(二ㅁ)를 검거하는동시 검사의지휘로 죽은어린것을 검사한결과 안면에타박상을바더슴으로 해부한결과 떠려죽인것이 판명되엇다는데 리래옥부부의 말에의하면 리래옥은 영양부족으로 죽엇다고하나 그의처는어린것이 밤에서 똥을누엇슴으로떠번 떠린것이 그가티 죽은것 이라하야 목포서에서는 방금엄중히 취조중이라고 한다

杜門洞祠院 創建基地提供

최씨는석재、전씨는개와제공 潭陽鞠氏一門壯擧

【개성】개성에잇는두문동사원(杜門洞祠院) 건설을 위하야강릉(江陵)의 최동길(崔東吉)씨는 석재(石材)전부를 제공하고 개성의 전흥원(全興浣)씨는개와(蓋瓦)一천을 자담하는등 각처로부터 현금이 답지하는중 또담양국씨(潭陽鞠氏)문중에서는 종중의 결의로써 사원건축기지 五천二백八十二평을제공하기로 하고 위선 대금중에서 一천二백원의 수형을국씨 문중대표인 국준호(鞠俊鎬)씨외二인의명의로 송부하얏슴으로 이가티각지로부터 성원이 답지하는데딸하 동사원건축 사무소에서는 一층 활기를 띄우고 착착사업을진행중이라한다

竹山讀者慰安

【죽산】본보죽산지국(本報竹山支局)에서는 마츰그곳에 시연무대극단(試硏舞臺劇團)이온것을기회로 본월二十二、三량일간 본보독자위안극을 죽산좌에서 흥행하얏는데 시민유지들의 다대한성원이잇섯스며 극장에는 매야본보독자를필두로 관중이 四五백명에달하야 장내는 립추의여지가업슬만치 공전의 대성황을이루엇다한다

馬山府酒稅 四十三萬圓

一인一년에 十四원부담 一日間千二百餘圓

【마산】술의마산이란 속칭이 경잇는만치 마산외유一한 특산품이란 오즉「술」로써 우리의공에달한 생활상과 정반대로 그늘고못는것은 술의계조이다 一년의 총계조고가 조선주약九천석(탁주약주병)일본주 약一만석(재제주、소주병)에 조선주一석에 三원二十전、일본주一석에 三十원비례로 총세금액이 四十三만八천여원에 달하며 一일평균주세금이 一천二백여원으로 이를 마산전인구 二만六천에비례해보면 한사람 一년부담이평균十四원五十여원이나된다한다

朔州道路上에 一人强盜出現

일명은체포

【신의주】부내상반정(常盤町)거주 중국인 형천록(邢天祿)(三七)은 지난十六일오후 동료二명과함께 삭주(朔州)로가든도중 삭주군외남면 대안동(朔州郡外南面泰安洞)정삭선(定朔線)도로상에서 강도二명을맛나그중一명에게란타당하고 현금五원五十전을 강탈당하얏섯다하야 삭주서에서는 그동안 범인검거에진력중이든바 지난二十二일 二명중一명인 리룡득(李龍得)(三七)을 체포하얏다

地方雜信

南一

◇南川大豆는 全朝鮮的으로 名價가 높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所謂檢査로因하야 商人들의頭痛이 莫甚한모양

◇말이낫스니 말이지 南川은 年來로 檢査問題가 擾亂하니 是何事也오

東洋第一

花王石鹼 (가오-비누)

品質本位

血色이조흔얼골

닥처오는치위에 지지말고 날마다元氣로지나십시오

家庭에서나… 學校에서나… 職場에서나…

新鮮한空氣와食物과 適當한運動 그담에는살의淸淨이 健康엔緊要합니다

淸淨은花王의 職責입니다! 安心하시고맛겨주십시오!

첫三日沐浴때부터「花王石鹼」

東京・花王石鹼本舖長瀨商會・大阪

吳楚興亡非我之所關、千載不遇之此時機 (本洋行萬雜貨商報)

驚! 中暴落 紛爭으로된 山東紬(ケンチュウ) (산동주)

山繭紬 三大特色 질기기는牛皮갓고 색채는美麗한軟黃色 (갑싸기는廣木同樣) 勿失此時

長四十八尺 幅一尺四寸 一바지 金七圓五十錢也 一疋
長廿八尺 幅一尺八寸五分 一바지 金一圓七十三錢半也 一疋

本洋行 三大特典 (南國海關稅自擔 全部先金送料自擔 多數所用價格相議)

本洋行山東紬價는今日廣木價보담도低廉 (依請求無代進呈)

多不品庫在 悔後勿切品

安東縣 市街入口

國際洋行織物部

興武王實記出版

惟我先祖新羅開國功臣追封興武王諱庾信之偉功勳載在國史世所周知而其詳細事蹟非當時實記則千載之下恐或爲湮沒故實記刊所定于本所而廣告于海內僉宗爲士之後孫者孰無永久追慕之心哉多數要請以爲家藏之寶務望方今刊出中除今年十一月晦內了販分帙豫定價金三冊一帙五圓地方代金引換

京城樂園洞七八 金海金氏大同宗約所

懸賞秘方七百通中特選된 當選淋藥

慢性用 四圓 急性用 二圓 試用無料 十五錢郵票

東亞日報京城販賣部 光化門通本社內 光七三〇番

京城水下町 平和堂

資本金五拾萬圓 株式會社 第一社

穀物、貿易 土地、金融 倉庫、委托 叺、肥料、鹽

叺 水原、振威郡農會指定 一年生産高 五百萬枚 三菱商事株式會社特約店

朝鮮水原邑南門外 電話一〇番 振替京城一九三四八番

穀、肥、鹽用、各等在庫 豐富多少不拘乞御注文

産科・婦人科 許信産婦人科醫院 院長 許信

京城安國洞一五五 電光四九一

趙膏藥 天一藥房

기침과천식에업서선안될 參天セキ(세키)藥

「參天セキ藥」은보기에도딱한、小兒의百日咳、頑固한천식、咽喉加答兒、氣管支加答兒、肋膜炎等의、기침을、진정하고、담을除去하며、목소리를좋게하고、呼吸을便利하게하는專門藥입니다。

無代進呈 醫學博士小田俊三先生의著「呼吸器病こゝろえ及喘息の話」(全一冊)及諸博士의文獻을無代呈上합니다

五十錢 一圓 [illegible]

大阪市東區 道修町一丁目 參天堂株式會社

364

서양료리 [20]

東京 金海羅

사몬、롤 (Salmon loaf)

재료 鱒詰一個

쌔터대시드三

계란 네개

생찰개쓴것一컵

소곰 호초 소곰

맨드는법 먼저계란을잘젓고 생찰개쓴것을 너코 주물러 쌔터 소곰 호초 사몬 쌔발르고 다가려 너허 한데주물려 동글고 길게맨드러 굽는남비(燒鍋)에 담아 어분에 익히어쓰되 三四十分 걸리며 차나더우나 맛이조흡니다

빽그드、피이쉬

큰 생선은 정히맨드러 뼈속도 소곰을색려고 정히 씨서스 생선우의 가루를색려고 뜨거운물 한컵을부어 어분에굽되 허핑을 너코굽는남비에담고 十분씩이다가생선미레 불을떠서 꿀고로 씨어언저 익히되 두근되면 三十分 三근이면四十분 비교로 익히어 더운김에 식탁에 낼것입니다

피이쉬、스텁핑

재료 쌩찰게쓴것二컵 소곰소시반 호초조금 파쎄리 썰어서 적은술가락 소시 개나 ·쌔터 큰술가락一 계란한개나 둘큰술가락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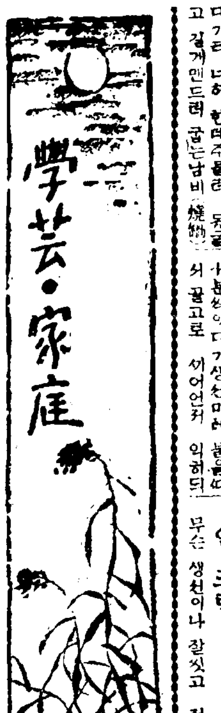
맨드는법 다가터 한데너허 주물려보아 물쉬가 아주업스면 뜨거운물두어술가락너허 저어서 생선뱃속에너허 익힙니다

보앨드、피이쉬、인、크림

무슨 생선이나 잘씻고 정히 맨드레쓴을 붓고또소금적은술가락하나를너허 十五분으로 二十분동안익히어 그릇에담고 산카(山葵)를생갈듯갈어 적은술가락하나쯤크림쓰쓰맨드는데너허 맨드러서먹읍니다

후라이드、피이쉬 (재一법)

생선을 정히맨드러 한치五분기리로베어 정한행주로물긔를 업시하고 소곰과 가루를 색려고 계란을 잘 저온데 잠간 담거내서 쌍가루를 입히어 기름만히 붓고 잘설커든 푸라이해서 더운김에 식탁에 낼것입니다



불난때에는 침착이 제일

소화시키는법과피난하는법 이철에명심할것

어떠케 잘못되어 불이낫슬때에는 위선 무엇보다도 침착하 소방대에 알려주어야 합니다 불과운이 약한때에는 불쫑의 불로도 아니에언것보다는 나흐니다마는 방울 쓰는데는반듯이 물로만은아니됩니다 례를들면 휘발유나 석유가튼것이 불이당겻슬때 가는면을 부으면 부읏스록 불이 번이퍼저버립니다 이런경우에는 모래나 회가튼것을 씨언거나이불로 더퍼버리거나 해야합니다 하여간 가름종류에 불이부터슬때는 소곰을사언도록 합니다

또불이 미다지나 창가튼데부터거든 그대로불을 씌언는것보다는 비에다가물을 적시어가지고 떠러쓰는편이 속히꺼집니다 좀더 불이커서 온집안을차도락거든 마루에 얼굴을바는것커렵하고 긴다든가단벽속으로피하야 밧그로 뛰어나올것입니다 또 저즌허겁으로 코와입을막는것도 조흔법입니다 이뿐아니라 뜨거운개와장과 불뚱이() 때에는 머리에 떠야나커진수건을뒤집어쓰고 다라나야 합니다 머리털과 의복에불이 부튼때는 절코 다름질만치지말고 곳지상에드러누어 굴거나 방석가튼것을 뒤집어씌울것 입니다 실회된때에는 될수록 침착하게서둘러야합니다

哲人스피노사 그의 生涯와 哲學

—誕生三百年記念을마지며— (二)

金斗憲

二

스피노사의 思索的意圖는 언제나 實踐的目的을 잇지안하엿다 그의哲學은個人의 心情을 平穩케하야 人生最高完全의 德福을 實現하려는것이엇다 그平穩은 오즉一切慾望支配하는 永遠不變한 自然即神에對한 歸依에 차젓다

神의槪念은 實로스피노사 哲學의核心이엇다 그것은一切實在의 根柢를어룬뿐아니라 知的愛의 對象으로서 全意欲의標的이엇든것이다

그러나 그의神은 外在的超越神이아니다 또한基督敎的人格神도아니다 이러한意味에서 그는無神論者이엇다 그러하야『맑스主義徒』는 실지비를無神論者로 推戴한다 그러나반듯이그러치도안흔것이다 웨그러냐하면스피노사는果然有神論者(Theist)가아닌 無神論者(Atheist)이엿스나 無神論者(non-theist)가아닌 汎神論者(Pantheist)이엿기때문이다 그는나만近世哲學의開祖(Bruno)와가튼意味에서의無神論者일뿐이엇다

스피노사의汎神論思想은벌서 否認할수업는根本思想이엇다 그러면 스피노사의 汎神論이란 어떤것인가

그에依하면 그自身으로 存在하며 그自身에依하야 생각된것을 實體(substance)라한다 그럼으로 實體은 絶對的으로獨立自存한것이오 無限唯一한것이다 그러면 이實體는 무엇이냐하면 그것은 곳神이다 이에 神은萬物의第一原因 그러나 外在的原因이아니고 內在的 原因 即自因(causa sui)이것이다 마치 三角形의 本質은 三角形을 떠나서 存在하지안는것과 가티 萬物一切는 神의 外에 存在한것이 아니라 神의 本質內에서 存在한것이다 그럼으로 有限한 自然界는 所產的自然(natura naturata)이라하면 神은能產的自然(natura naturans)이라할것이다 스피노사는이것을 神即自然이라는 말로表示하얏다

널뛰기

金時昌

쿵달쿵 올락네

멍덜쿵 내럭네

×

널쭉이 깔깔

집채가 출렁

×

키다리 굴둑이

낫둠낫둠 곤두박질

가정상식

▲옷의곰팡이

옷에 부튼곰팡이는 옷습게떠저버릴수 업는것입니다 심질이낫븐 곰팡이는 본바탕빗갈써지면하게하고 심한것이면 다른볼을드려도 그부분만은 도모지잘 쌜아드리지를 안습니다

곰팡이를 쌔는 방법으로는봉사말(硼砂末)찻 수가락으로 하나쯤을 따뜻한후쥬에 풀어서 이것을 잇술에칠하아편한 넓반지우에사제를 에겁처서펴노코 그우에 곰싹이슬은부분을펴노코 우에바한 잇술로삭부삭부 부처내도록합니다

▲벽터진대

아모리 잘지은집이라도 또아모리 쌔쌔히칠한 벽이라도 흙집한벽은 쉬터져버력진모이 생깁니다 이것을곱다라케 메워 떠려지지안케하는 방법이 잇습니다

이비결은 다른것이 아닙니다 석고(石膏)를 물대신 초에풀어서그러진데 싼싼하게바르면됩니다 석고는 쉬 웅크러지지안는 것임으로 잘러지지안하서 더욱 조흡니다

▲모사물세탁

모사면불한것은 눈에 쎄이지안케잘더려운것으로 좀이잘먹기 쉬운것입니다

그러라고하야 또서툴르게 잘못빨며 옥으라지고 털이 풀려기도하야 허려지기 쉽습니다

빨때에는 가루비누나 맑세두비누 락카스 가튼것을쌔야 합니다

이러한것을 푼물속에 삼시닥거두엇다가 됨대로 비벼빨지말고 웍웍눌르거나 흔들흔들 헤워서 그물에 말됩니다 [illegible]에 집에 한번 [illegible]다

紙上病院

월경이 만하저

【문】 四十二세녀자이온데 약五년전부터 월수가 전처럼 적더니 근자에는 불납게 만하젓는데 五년전에 비하야 五六배이상이됩니다 다른병증은 업는데 월수만이 이러케 만하지니 만일두손병이라하면 치료할법을 좀하교하야주시면 감사하겟나이다 생산은 한번도못해보앗습니다 (一讀者)

【답】 월경이 차차 업서질때에(四十세로四十六七세)에는 월경이 불순하고 또만히나옵니다 그때신에다른병(자궁근종)이생기쉬우오니주의하얏다가 전문의사에게진찰을바더보시거나『부로크린』이라는환약을 하루에세번씩두개씩을 잡수시어보십시오 (京城帝大産婦人科敎室 尹泰權)

적대하

【문】 금년二十一세 처녀입니다 !어렷슬쩍부터 아래로 이상한누른물이항상흐르드니 그빗치 차차변하야 지금은붉으스름한게흐릅니다 그리고 흰자위가튼것도나옵니다 그리고당할 각금소변볼때면 아래가 아픈것가튼게 어데케할수업시 괴로와지낫뷰게 정신을 엄작도하기실습니다 그러나 월성은다달이 순조롭게 잘합니다 무슨방법으로 치료를해야 곳치겟슴니가? 그리고 장래에 결혼하면 임신할수 잇슬까요? 병명과 자택치료법을 자세히 아교하야주십고대하나이다 (苦心女性)

【답】 처녀때에도 허연대하가잇는일이잇습니다 그러나 미혼하신부인이오니간 화류병은아닌듯하오며 또 염려하실것업습니다 결혼하시어도 수태못하는것은업습니다 (京城帝大産婦人科敎室 尹泰權)

新刊紹介

紹介를 바하는 冊子는 一切 本社調査部로

▲化學工藝十一月號 現代を動かしつゝある十人 自動車用安全硝子の製造法 獨逸の工業を代表する二工場の現狀 滿洲に於ける主要資源と化學工業 マンガンの世界產額 インヂゴ化學最近の發達に就て等其他 發行所群馬縣桐生市天神町一ノ二二一 化學工藝社振替東京二九〇一六番 定價四十錢

▲新東亞十二月號 朝鮮의經濟界、朝鮮文化界、移動座談會、各界名士의主中打診、經濟界、敎育界、宗敎界、法曹界、言論界、中國과파시즘運動、中國의國防建設計劃大綱、十月中世界重要時事解題、日本文壇新興藝術派論、通俗科의聖地巡禮、新戀愛論、겨울의學文藝、等其他 京城光化門通一三九新東亞社發行 定價三十錢 振替京城一四五〇〇番

▲女性朝鮮十一月號 兩性問題로본人間論、婦人運動의根本精神、體格과性格、職業女性의意識問題、朝鮮과產兒制限、女性受難、모던독개비이야기、等其他 發行所 京城鍾路四丁目一八〇女性朝鮮社 定價十錢 振替京城一一三六五番

▲普及十一月號 米穀問題と米穀法の改正、物價で財界が觀測出來る、社會と犯罪、資本のゆくか、時事解說、統制經濟とファシズム、勞働者災害扶助責任保險法令に就いて 逓遞公營論と比例代表制等其他 發行所東京市赤坂區田町七丁目 大日本法令普及會 定價十錢 振替東京二五二三七番

[十五]

方仁根 作 李靑田 畵

웃파怪石 (5)

『퍽 기다렷지』하고 상봉이 벙글벙글하며 응접실로 드려오고 뒤미처 애희가 드려왓다。나가라든 영철과 경선은 다시 주저안젓다。

『어떠튼가』하고 영철은 애희와 상봉을 한거번에 쳐다보면서 물엇다

『뭘 괜찬어 념려말게 예침만 다니시면 다 낫겟네ー봉대를 매서서 거북하시지요』

『아ー니에요』

간호부가 다리에바를 약병을 가지고와서 탁자에노핫다。애희는 얼굴이 붉으려 해서 고개를 숙이고 안젓다。

『그래 진찰을 바드니까 좀나흔것가터요』하고 영철은 애희에게 말을건늬엿다。

『……』

『꽃버기의사라고 신인아니하는것을 강제로 더려고 왓네 자네이두분에게 잘뵈여야 너학생환자새나 어더볼젤세』

애희는 우스며 영천을 흘겨보앗다。

『참 두분 광고나 좀 널려 해주십시요 위선과석구경이나 오시라구요 하하하』

『참 자네 요새도 물장수하나』

『하고말고』

『거 우리집아고 키 애희씨네집도 좀 더주게나그려』

『하하하 그것도괜찬치 그러나 거기는 구역이달려 우리볼자리가 아닐걸』

『그것도 뭐 자리가 잇나』

『잇스면 여간 물자리 하나에 갑이얼마라고 물자리 매매를다한다네。비싸긴 또몹시 비싸다네』

『그것도 또ー참 요새는세삭소리가 더요란하겟네 그려』

『그리치 물동에서 세각、물지게에서세거 어듬만에서 신발이 뼈각세셔 참 요란한 음악이자 커유악가게서 늘상 수세의소리를 작곡하다면 조흘걸더인데요 하나해보시지요하하하』

『그야 문학사가먼저 노래를지여야 하지요 조선생 어썻습니까』

네사람은 서로처다보고 우섯다。경선은 정중하게 상봉을 바라보며

『참 초면에이런부탁을 하기는 민안합니다 마는 [illegible] 드려주시겟서요』

『무엇이지 알어야지요』

『퍽 어려운일이에여』

『어려운일이면 들어드려지요 쉬운일이라면 말습도마시고』

『커ー다른게아니라요 저희학교헌생칭년회에 농촌부가 잇서요 그런데거기서가 책임자랍니다 그런데요 시외어느촌을하나지정하고 농촌부에서 매주일나가서일을하는데 말하자면 글도가르치고여러가지 일을해요 그중에하나는 가끔 무산아동에게 무료진찰을하고 약을 주는데늘 맛당한의사가 업서요 한두번나갓다가는그만두고해서 아조 성적이불량하고 또신용이 업서젓서요 선생님이 좀마더주시겟서요 갑작이말슴해서 무엇합니다만은 참퍽어려운 청이에요』

『네 그러지요 하겟슴니다』하고 상봉이 넘우쉽게열는승락하여경신은 싱거웟다。그러나 그한마듸가 천근무쇠덩이처럼 무겁게들리는것으로보아신임할수가 잇섯다。

『고맙습니다』

『한달에 멧번식인가요』

『무료시료는 한달에 한번이에요』

『한달에 한번씀이야ー네책임잇게 하겟습니다 촌아이들의나를보고 놀래서 십장병이나아나난다면ーー하하하』

『그대신 보수는 업습니다』하고 경선은 머뭇머뭇하다가 말하엿다。

『무료진찰이니까 의사도 무료이겟지요 나도그런일에 취미를가지고 나개인으로도 하는것이잇습니다 그런것은 아모념려마십시요』

경선은 웬일인지 눈물날만치 감격하엿다。

『그럼 자세한것은 이다음에 와서 말슴하겟습니다』

『네 그래주십시요 아ー나 왜 들일어서십니까』

『느저서가야겟네 자네도또일이만흘터이고』

『인제 좀 가섭들리게ーー나야 자네를 찾기어렵지만 자네는 반낫 이근처에발길이 도라서기가쉬지안흔가。친구란 너무격조해도 못쓰는거야 하하하』

경선은 오다가 당주동아페서 애희와 영철이가 나란히가는것을 작별하고 혼자 눈길을더듬어 학교긔숙사로왓다。웬일인지 지에업시 적막하엿다。애희와영철이 정답게 부터 소근거리며 가는것이 눈에지밟히엇다。

긔숙사방에잇는 동무는 저녁먹으러 식당으로 다 나려가고 고요하엿다。경선은 침대에헐석누웟다。피곤에감기는 눈속에는상봉이 나타낫다。경선은빙그레웃다가 입을삭담을엇다。그리고『웃과괴석』이라고 하는 상봉의말이 무득이상스럽게 머리에아로삭여지고 생각키엇다。

모히中毒科專門 順天醫院 入院案內書進呈 大田本町一丁目

書籍 東亞日報購讀請求所 市內貫鐵洞七五番地 金剛商會 (電話光一三七八番)
新刊 古書十錢부터六十錢外지均一其他 高價買入 一報하시면곳가뵙겟습니다
古本 京城府明治町二 金剛堂書店 電本三三三七番

高級毛糸 비ー하이부 東亞日報購讀請求所 市內竹添町三丁目四五〇番地 京城自動車工場 (電話光一八六、三番)